

## 새 조국건설시기 나라의 체육을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킨 불멸의 업적

박 철

체육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체육을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민주조선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키시여 우리 민족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민주조선을 건설할 씩씩한 건국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인민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291페이지)

새 조국건설시기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체육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체육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신것이다.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은 소수 특권계층의 유흥거리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었거나 일제의 침략전쟁준비에 복무하기 위한 전투훈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체육은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나라의 체육실태를 통찰하시고 주체34(1945)년 11월 1일 북조선체육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하신 담화 《북조선체육동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와 주체35(1946)년 10월 6일 체육인대회에서 하신 연설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와 체육의 민주주의적발전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체육의 민주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체육부문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체육을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닦는것은 체육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당시 체육인들은 체육회, 체육인동우회, 체육련맹, 체육후생련맹 등 여러가지 명칭의 단체들을 내왔지만 분산성을 면할수 없었으며 한편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체육계에 발을 들여놓은 어중이떠중이들은 저마다 체육인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여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루빨리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을 내오고 체육단체들과 체육인들을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의 조직에 결속하며 체육사업에

대한 정연한 국가적지도체계부터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 한 일군을 만나신 자리에서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자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야 하며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 보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체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을 용감한 투사로 육성할 수 있으며 침략자원썩들과 싸워 승리할수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나서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특히 모든 체육인들을 묶어세우는 체육동맹을 하루속히 내와야 한다고 교시 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주체34(1945)년 11월 북조선체육동맹이 결성되게 되였다.

북조선체육동맹은 전문체육인들과 체육애호가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조직으로서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수후비육성사업을 담당수행하는 의무를 지니였다. 체육동맹에는 축구, 룡구, 정구, 탁구, 레스링, 력기, 자전거, 룡상, 체조, 속도빙상, 빙상호케이, 휘저, 그네뛰기, 씨름, 장기 등의 운동종목부서들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광범한 체육인들이 망라되였다.

북조선체육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전국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체육단체들과 체육인들을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의 조직에 굳게 결속할수 있게 되였으며 체육분야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체육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의 체육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체육동맹이 체육인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체육인들의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활동에서 지방본위주의적이며 단체본위주의적인 경향을 없애고 체육인들의 단결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북조선체육동맹은 체육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체육분야에 나타난 이색적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체육경기대회를 활발히 조직하고 인민대중속에서 체육계몽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북조선체육동맹이 무어진데 이어 주체35(1946)년부터 각 도, 시, 군들에 체육단체들도 조직되였다.

주체35(1946)년 3월 함경남도에서는 도안의 여러 지방체육대표 500여명이 모여 열성자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주체35(1946)년 8월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체육동맹과 희천군(지금의 자강도 희천시)동맹이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체육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체육활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북조선체육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인민정권안에 체육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보는 전문부서를 두며 체육사업을 집행하는 중앙지도기관을 내오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에 따라 주체36(1947)년 1월에 북조선체육위원회가 조직되고 도, 시, 군에는 해당 지역단위의 체육사업을 지도하는 체육위원회들이 나오게 되였다.

북조선체육위원회는 체육사업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낡은 체육경기세칙과 규정, 운영방법을 없애고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체육경기규정과 규칙 등을 비롯하여 체육사업의 모든 법규들을 새로 제정공포하였다.

북조선체육위원회는 도와 시안에 조직된 각종 운동구락부에 생산활동에서 리탈하지

않는 근로청년만을 참가하게 하여 체육활동을 생산활동과 떨어짐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장내 체육일군들을 양성하며 체육문화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체육잡지를 발간하고 각 신문들에 체육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직맹, 민청단체들에서 직장과 농촌실정에 맞게 매일 20분정도의 인민보건체조를 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전조선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종합체육대회(주체37(1948)년 10월), 제1차 체육절기념 전국종합체육대회(주체38(1949)년 10월)를 비롯한 체육대회와 종목별경기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체육사업은 해방직후부터 국가의 통일적인 조직체계에 의거하여 자랑스런 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게 되었다.

새 조국건설시기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체육인대렬을 강화하고 체육시설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육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다.

체육사업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체육일군들과 전도유망한 체육후비들을 많이 키워내고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체육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해방후 북조선에 체육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던것으로 하여 체육사업을 지도할수 있는 교원들이 부족하였다. 체육전문가들이라고는 불과 몇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들마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주체35(1946)년 10월에 평양고등사범학교(후에 평양교원대학)에 체육과를 내오고 주체37(1948)년에는 평양사범대학 체육학부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신의주교원대학과 해주교원대학에도 체육과를 각각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체육일군양성사업은 정규교육망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한편 단기강습기관들을 내오고 체육교원들과 체육지도원들을 재교육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주체35(1946)년 5월부터 체육지도원양성소가 설치되어 60여명의 체육지도일군들을 양성하였으며 주체36(1947)년에는 55명의 초급중학교 체육교원들을 양성하였다. 이와 함께 각 도에서도 단기양성소와 강습소를 통하여 수백명의 교원들과 직장체육지도원들을 양성하였다. 주체37(1948)년에 평양교원대학에서는 40여명의 체육일군들을 키워냈다.

교육성(당시)에서는 주체38(1949)년 7월부터 2개월간 60명의 중학교체육교원들에 대한 재교육강습을 진행하였으며 중앙체육지도위원회에서도 이해에 직장체육지도원강습을 조직하고 수백명의 지도원들을 양성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체육일군양성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단성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축전에서 거둔 성과를 인민들에게 알려주며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일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내무성룡구단(당시)은 주체37(1948)년에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지방에 대한 순회지도를 진행하였으며 주체38(1949)년에는 공화국 북반부 각 지방에 대한 순회지도를 계획하고 3월부터 평안북도와 황해도지방에 나가 공장과 농촌, 학교의 체육기술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체육지도일군양성 및 재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심판원양성사업에도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기종목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심판원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각종 경기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정하는것은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아가서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축구, 룡구, 배구, 권투, 룡상심판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체육지도일군양성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진 조건에 맞게 체육선수들을 전망성있게 키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업소들에 체육구락부가 꾸려지고 주체36(1947)년 9월 내무국체육단(당시)이, 주체38(1949)년 3월에는 민족보위성체육중대가 각각 조직되어 유망한 체육선수들을 전망성있게 키우게 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체육일군들과 전도유망한 체육선수들이 자라나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체육시설건설과 체육기자재생산을 다그쳐 나라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마련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사실 북조선에 있던 체육시설이라야 평양과 일부 도시들에 불과 몇개 있었을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일제와 그 주구들의 돈벌이수단이였다.

이로부터 일제와 그 주구들의 소유였던 체육시설을 국유화하는 동시에 전인민적운동으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2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국유화된 체육시설과 기자재들을 보수정비하고 광범한 인민들이 리용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주체36(1947)년 7월에는 체육시설을 늘이고 체육기자재생산공급을 각 도인민위원회에서 하며 국가에서 자금을 지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새로 일떠선 민청체육관이 체육인핵심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근로청년들을 망라하여 우리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4월 평양시 중구역에 건설된 민청체육관 개관식에 나오시여 청년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 도에 각종 체육시설들을 완비하며 룡상, 수영 및 여러가지 경기종목들을 발전시키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은 국유화된 체육시설들을 정비보수하는 한편 자체의 힘과 기술로써 체육시설들을 확장 또는 새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평양시에는 1 0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민청체육관을 비롯하여 모란봉경기장, 동평양경기장, 경마장, 학교운동장들이 확장 및 건설되였다. 강원도 원산시에는 주체37(1948)년에 2만명 수용능력의 종합경기장이 건설되였고 함흥, 청진, 신의주, 해주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들에도 경기장들이 신설확장되었다.

주체37(1948)년까지 전국적으로 경기장 및 크고작은 운동장이 1만 1 900여개, 체육관 및 체육실이 600여개, 주체39(1950)년 6월까지의 경기장 또는 운동장이 1만 4 800여개, 체육관 및 체육실이 700여개로 늘어났다.

한편 평양과 원산, 함흥, 청진시들에 운동기구제작소가 새로 나오고 축구, 룡구, 배구, 탁구와 체조, 룡상, 수영, 빙상 등에 필요한 운동복과 각종 공류, 운동기자재들을 생산하여 공장과 농촌, 학교들에 공급하였다.

이 모든것은 나라의 체육을 빨리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담보였다.

새 조국건설시기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광범한 대중을 체육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명량한 새 민주사회의 역군으로 키우신것이다.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며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여야만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튼튼한 체질과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체육동맹을 결성해주시던 시기에 벌써 체육일군들이 광범한 대중을 체육활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체육의 대중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주체35(1946)년 10월에 진행된 체육인대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의 체육을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는 전인민적체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늘 체육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대중속에서 체육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인민보건체조를 널리 보급하는 동시에 인민체력검정제를 내오도록 해주시였으며 내각결정으로 체육절도 정해주시였다. 이와 함께 광범한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대회를 널리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주체36(1947)년 조국해방 2돐을 맞으며 진행된 북조선인민체육축전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인민보건체조와 산업체조, 청년체조, 소년단체조 등 계층별체조가 창작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으며 해마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인민체력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주체38(1949)년에 실시한 인민체력검정에는 83만 7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전해보다 4배나 되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합격하였다.

특히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널리 보급된 집단체조는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집단체조 《삼등면인민들은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주체36(1947)년 11월)와 평양시의 1만여명의 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하여》(주체38(1949)년 10월)는 우리 나라 집단체조발전력사의 첫 장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처럼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나라의 체육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강하고 자주적인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체육으로, 인민을 위한 체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신 체육강국건설구상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체육중시기풍, 체육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우리의 체육인들속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들이 이룩되어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체육강국을 일떠세워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전인민적체육, 체육동맹